

강원도정 소식

소나무 불법채취·반출 근절

적발시 사법처리 ... 내년 단속초소 늘려

강원도는 소나무 불법 굴·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일간 도내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산림훼손과 허가없이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소나무 반출시 생산확표 또는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허가없이 산림훼손 또는 입산물 굴·채취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를 반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소나무 굴·채취 허가(신고)지와 산간오지대 등 취약지역을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고 매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굴취 및 반출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도내 2개소(춘천,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단속 초소를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강릉·삼척 등 주요 국도변에 4개소를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아동범죄 예방용 CCTV 설치

광산초 정문·거진어린이공원

고성군은 3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내로 간성읍 광산리 광산초등학교 정문과 거진을 거진 어린이공원에 각각 2대씩 총 4대의 아동범죄 예방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아울러 CCTV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서 상황실에 장비 1식을 설치해 교통사고 및 유괴, 폭행, 성범죄 등 아동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훈석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선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도 국회의원 중 유일

송훈석 국회의원(민주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에 선정돼 지난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이다. 올해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0%도 안되는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강원도 국회의원 가운데는 송훈석 의원만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입법발의와 공약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확립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매년 20명 가량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

송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해 선정하는 '약속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광호 기자**

의정비 인상여부 14일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 지난 3년간 동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물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의정비를 소폭 인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본보 9월26일자, 제32호 보도) 가운데,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여부 및 인상폭 등이 오는 14일 최종 결정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4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의정비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인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역은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인상여부 및 인상폭은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만큼 이번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소폭이라도 인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원도의회는 올해보다 5.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대다수 의회도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화천의 경우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것이며, 설악권 4개 시군의 1년간 의정비는 속초 3,397만원, 고성 3,024만원, 양양 3,015만원, 인제 2,819만원이다. **최광호 기자**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고성군 전담 T/F팀 4개반 19명 구성

고성군이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를 2011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체제에 나서고 있다.

군은 건설방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팀 4개반 19명을 구성해 설해예방을 위한 물자, 장비, 인력에 대한 사전 확보와 위험구역 지정, 취약구간 특별관리, 도로제설대책,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등 분야별 사전대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선제적 조기경보체계를 구

축하고 현장지원본부 및 현장책임자 전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겨울철 재난대처 행동요령, 대설·한파시 대처행동요령, 재난문자전송서비스 활용, 재난경보방송 운용 등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권익위는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평가'가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청렴활동, 정권 대비 부패발생률,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을 반영하는 60여개 지표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평가방식은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과 수범사례까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개 분야와 8개 부문, 60여개 지표의 시행방안이 새로 마

련됐다. 평가 이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변경됐다.

새로 개편된 평가에서는 ▲ '기관장 노력' 부문에서 기관장의 관심·의지와 반부패 활동 참여도 등이 반영된다. ▲인프라구축 부문에서는 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성과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을 평가한다.

권익위,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명칭 변경

기관장 청렴활동 등 60여개 지표 새로 마련

▲ 공정성·투명성 제고 노력 부문에서는 정책결정과 예산 집행과정의 공개 정도를 평가한다. ▲ 책임성·신뢰성 확보 노력 부문에서는 대민 신뢰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 노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패인식·경험 부문에서는 해당기관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 경험여부 등을 반

영하고 ▲청렴수준 개선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 개선 정도와 부패인식 수준 개선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은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을 ▲언론 모니터링 부문은 각 기관의 부패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점수화해 반영하되 고위직 부패 사례가 보도된 기관일수록 점수가 더 낮게 평가된다. 반면, 창의적인

반부패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경우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시행 계획(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금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